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29



Contents

※ 2026.05.07.(목) 기준(대상 기간 : 2026.04.30.~2026.05.06.)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로 탄소중립 달성 (2026.04.30)1
- 충남-포르투갈, 탄소중립·기후경제 파트너십 강화 등 '기후경제 협력' 모색 (2026.05.06) 1
- 의성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점검 심의회 개최 (2026.05.06)2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2

▪ 탄소중립 분야 2

- 시가 현장 환경 제어... 탄소중립 '스마트 축사 모델' 실증 (2026.05.06)2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4

▪ 탄소중립 분야 4

- KAIST, 에너지 반응 비밀 풀어...배터리·수소·탄소중립 기술 성능↑ 길 열어 (2026.05.03) 4

- 한 달도 안 남은 기후특위... '위헌' 탄소중립법 개정 어찌 되나 (2026.05.06) 4
- "지방정부 탄소중립 5년... 계획은 늘고 실행은 더뎠다" (2026.05.02) 5

■ AI 분야 5

- KDB생명, AI 고객 DB 마케팅 플랫폼 구축... "설계사 지원" (2026.05.06) 5
- "적자보다 미래"... 배터리 3사, AI 데이터센터 타고 '하반기 턴어라운드' 정조준 (2026.05.04) · 6
- LG CNS, 올해 1분기 영업이익 942억... AI·클라우드, 전체 매출 '약 58%' (2026.04.30) 6
- 라온피플,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참여... "AI 솔루션 구축" (2026.04.30) 7
- 일본 최고재판소장 "재판관 판단에 AI 활용 고려 안 해" (2026.05.03) 7
- "화웨이, AI칩 매출 60% 급증 전망"... 中 수요에 '엔비디아 공백' 파고든다 (2026.05.03) · 8
- 구글, 제미나이 광고 검토... AI칩 직접 판매로 엔비디아 정면 승부 (2026.04.30) 8
- 직장인 절반 "AI 도입 후 채용 줄었다... 업무량은 그대로" (2026.05.03) 9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중앙부처</p>	<p>☐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로 탄소중립 달성 (2026.04.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0일 서울 LW컨벤션에서 녹색분류체계 기반 정보공개 참여 5개 기업(LG에너지솔루션, LS전선, 삼성SDS, 우리은행, 효성중공업)과 '지원 업무협약' 체결. - EU Taxonomy를 참조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는 2021년 마련 이후 기업·금융기관의 녹색투자 기준으로 활용 중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녹색 매출액·자본적지출(CapEx) 등 성과지표 산출 방법론 검토 및 업종별 정보공개 사례 개발 예정. -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기업이 일관된 기준으로 녹색경제활동을 제시할 때 투자자의 신뢰가 높아진다고, 자본 흐름의 녹색 대전환을 위해 K-Taxonomy 활용 기반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방침 천명.
<p>지자체</p>	<p>☐ 충남-포르투갈, 탄소중립·기후경제 파트너십 강화 등 '기후경제 협력' 모색 (2026.05.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는 6일 내포신도시 충남공감마루 다목적 회의실에서 '충남-포르투갈 기후경제 협력 세미나'를 개최. 주한포르투갈대사관 엘리오 캄포스 참사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전환·무역·투자 활성화, 고부가가치 산업 모델 발굴 등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 진행. - 세미나에서는 포르투갈-충남 경제협력 기회, 충남의 10GW 재생에너지 방향, 스마트 영농형 태양광 사업화, 기후 적응 통합 시나리오 등 5개 주제 발표. 에너지·디지털 혁신 분야 투자 활성화 및 지역 상생형 비즈니스 모델 설계의 계기로 평가. - 김영명 충남 환경산림국장은 포르투갈과의 협력이 탄소 감축을 넘어 재생에너지를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체계 구축 의지 표명.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의성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점검 심의회 개최 (2026.05.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성군은 4월 3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 심의회'를 개최. 건물·수송·농축산·폐기물·흡수원 5개 분야 2025년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의성군 최초 이행점검 심의회로서 목표 달성 결과 공식 확인. - 전반적으로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이행됐으며 2025년 목표 달성에 평가. 단, 전년도 대형산불 영향으로 흡수원 분야 일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향후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산림 복원 및 탄소흡수원 기능 회복 보완 방침. - 김주수 의성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 부서의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했다며, 이번 심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향 제시.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 해당 없음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AI가 현장 환경 제어... 탄소중립 '스마트 축사 모델' 실증 (2026.05.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제주도와 공동으로 제주대 실험부지 약 800㎡에 스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마트 축산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탄소중립형 축산 모델 개발에 착수. 온도·습도·이산화탄소·암모니아 농도 모니터링 센서, 엣지 컴퓨팅 기반 환경제어 시스템, CCTV 기반 이상행동 감지 시스템, AI 기반 탄소 저감 알고리즘 등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축산업은 메탄·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아 기술적 접근이 시급한 분야로 꼽히며, 연구진은 기존 대비 10% 이상 탄소배출 저감을 목표로 실증 진행. 향후 전국 양돈 농가에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 축사 표준 운영 모델' 제시 계획. - 김규형 ETRI 제주AX융합연구실장은 AI가 돈사 환경을 스스로 판단·제어함으로써 탄소 저감 효과를 명확히 실증하고 농축산 분야 탄소중립 표준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 제시.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해당 없음
대학교	<p>☐ KAIST, 에너지 반응 비밀 풀어...배터리·수소·탄소중립 기술 성능↑ 길 열어 (2026.05.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IST 김형준 화학과 교수팀이 포스텍·UNIST와 공동으로 전기 이중층 내 구조적 상전이 현상을 세계 최초로 분자 수준에서 규명. 전해질 농도에 따라 전기용량 곡선이 '낙타 모양'에서 '종 모양'으로 변화하는 원인을 원자 수준 시뮬레이션과 실시간 적외선 분광법(ATR-SEIRAS)으로 규명하여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 - 음극의 물 분자 재배열과 양극의 음이온 응축 현상이 곡선 형태 변화의 핵심 원인을 밝혀내고, 전극 전위·전해질 농도에 따른 전기 이중층 변화를 나타내는 상도표(phase diagram)를 세계 최초 제시. 배터리 충전 속도 향상, 수소 생산 효율 극대화 등 탄소중립 에너지 기술 성능 개선의 이론적 기반 마련. - 김형준 교수는 이번 연구가 미세 전기화학 반응 환경을 처음으로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전기 이중층 상전이의 정밀 제어를 통해 에너지 기술 전반의 성능 향상 가능성 제시.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p>☐ 한 달도 안 남은 기후특위... '위헌' 탄소중립법 개정 어찌 되나 (2026.05.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가 현재 제시 시한(2026년 2월 28일)을 두 달 이상 넘긴 채 표류 중.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의 활동 종료 시한도 한 달 이내로 임박했으나, 10건 안팎의 발의 법안에 대한 1회독도 미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쟁점은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경로 설정 방식으로, 민주당은 '조기 감축형'을, 국민의힘은 '선형 감축경로'를 각각 주장.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 간에도 감축 수준을 둘러싼 입장차가 뚜렷하며, 정부 단일안 도출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 - 6·3 지방선거로 인한 국회 일정 불확실성이 추가 변수로 작용 중이며, 기후특위 임기 내 통합안 마련이 어려울 경우 향후 기후에너지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
기타	<p><input type="checkbox"/> "지방정부 탄소중립 5년 . . . 계획은 늘고 실행은 더더" (2026.05.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너지기후행동파트너십 도약(LEAP)과 한국법제연구원이 4월 30일 공동 포럼을 개최하여 지방정부 기후에너지 정책 5년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 점검.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계획과 제도는 확산됐으나, 정책 간 정합성과 재정·행정 시스템의 연결성 부족으로 실제 실행력은 제한적이라는 진단. -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예산 제도화, 거버넌스 강화, 법제도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발표와 토론 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질적 환류 부족, 재생에너지 발전의 지역 편중 문제, 시민 참여 거버넌스 미흡 등이 구조적 과제로 제시. -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기후에너지 정책 현재를 “계획은 확대됐지만 실행 구조는 미완성”으로 평가하며, 재생에너지·기후예산·거버넌스·법제도를 하나의 실행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구조 전환의 필요성 강조.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input type="checkbox"/> KDB생명, AI 고객 DB 마케팅 플랫폼 구축... "설계사 지원" (2026.05.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B생명은 설계사 영업 활동 지원을 위해 AI 기반 '고객 DB 마케팅 플랫폼'을 구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축했다고 발표. DB 배분부터 성과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며 DB 배분 직후 '골든타임' 집중 영업 체계를 수립, 파일럿 테스트에서 기존 수기 방식 대비 영업 성과 개선 효과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은 AI 분석 기반 고객 수요 파악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병행하여 운영. 현장 설계사의 숙련 영업 노하우와 플랫폼의 정교한 분석 역량을 결합해 영업 성과를 높이는 구조로 설계. - 남규현 전속채널실장은 플랫폼이 설계사들의 효율적 업무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며 데이터 기반 내실 있는 영업 지원을 통한 회사 영업 활력 제고 의지 표명.
	<p>□ "적자보다 미래"... 배터리 3사, AI 데이터센터 타고 '하반기 턴어라운드' 정조준 (2026.05.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G에너지솔루션(1분기 영업손실 2078억 원)·삼성SDI(1556억 원)·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1분기 동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AI 데이터센터 증설 수요와 맞물린 ESS(에너지저장장치) 시장 확대에 따른 하반기 반등 가능성에 집중. AI 데이터센터의 대용량 전력 수요와 비중국 공급망 선호가 국내 업체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구조. - LG에너지솔루션은 2분기부터 테네시주 공장의 ESS용 LFP 배터리 생산 재개 및 북미 생산망 가동을 통한 AMPC 수취 확대 기대. 삼성SDI는 4분기 ESS용 LFP 양산 본격화, SK온은 북미 공장 가동률 회복이 하반기 실적 개선의 핵심 변수. - iM증권 정원석 연구원은 이차전지 업체들의 실적 컨센서스 하향 조정 흐름이 마무리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미국 ESS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 중인 업체들의 긍정적 변화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 제시.
	<p>□ LG CNS, 올해 1분기 영업익 942억...AI·클라우드, 전체 매출 '약 58%' (2026.04.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G CNS는 2026년 1분기 매출 1조3150억 원, 영업이익 942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8.6%, 영업이익 19.4% 증가. AI·클라우드 사업 매출이 7654억 원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전체의 약 58%)으로 성장을 견인하며, 에이전틱 AI 기반 멀티 에이전트 서비스와 오픈AI·팔란티어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 부문에서 삼성 데이터센터 약 1조 원 수주 및 6개월 내 구축 가능한 모듈형 AI 데이터센터 출시. 인도네시아 AI 데이터센터(국내 기업 최초 해외 수주)는 올해 말 완공 예정이며, 일본·미국 등 글로벌 시장 공략 지속. - 향후 산업특화 RFM(로봇 파운데이션 모델)·하드웨어·플랫폼을 결합한 '풀스택 RX 서비스'로 피지컬 AI 분야 로봇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자체 개발 로봇 학습·운영 플랫폼을 5월 중 공개 예정.
	<p>□ 라온피플,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참여... "AI 솔루션 구축" (2026.04.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전문기업 라온피플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6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충남 AI 대전환 B.R.I.D.G.E.)에 참여한다고 발표. 총 사업비 298억 원 규모로 충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하며 서울대·KAIST·공주대·한국생산성본부 등 9개 기관 컨소시엄 구성, 라온피플은 AI 비전솔루션 및 AX 서비스 플랫폼 구축 담당. - 충남 천안·아산 지역 반도체·디스플레이·모빌리티 분야 중소 협력업체 90여 곳의 AI 대전환을 목표로, 머신비전 기반 AI 비전 검사 솔루션과 국산 NPU 기반 엣지 AI 적용으로 제조 현장 품질 향상 및 국산 반도체 활용도 제고 추진. - 라온피플 관계자는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부품 공정에 AI 솔루션 적용 레퍼런스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B2G·B2B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향 제시.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해외	<p>□ 일본 최고재판소장 "재판관 판단에 AI 활용 고려 안 해" (2026.05.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최고재판소 이마사키 유키히코 소장이 헌법기념일 기자회견에서 AI를 재판관 판단에 활용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 일본 법원 당국은 2026년 1월부터 민사 재판 증거 정리 등에 생성형 AI의 보조적 활용 가능성을 분석 중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p>이나, 소장은 실제 재판 활용에 대해 “아직은 아니다“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마사키 소장은 AI 성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음을 “맹수와 같다“고 표현하며,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고려해 활용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 밝힘. 오는 21일 전면 시행되는 민사 재판 디지털화 추진 의지도 재확인. - 사법부 판단에 AI를 직접 개입시키는 것에 대한 신중론이 일본 최고사법기관 수장의 발언으로 공식화됨. AI의 사법 활용 범위와 한계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중요한 참고 사례로 주목.
	<p>□ "화웨이, AI칩 매출 60% 급증 전망"...中 수요에 '엔비디아 공백' 파고든다 (2026.05.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이터통신이 파이낸셜타임스 보도를 인용해 화웨이의 2026년 AI 칩 매출이 약 120억 달러(약 17조 원)로 전년(약 75억 달러) 대비 최소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 올해 3월 양산을 시작한 최신 AI 프로세서 '어센드 950PR'이 수요 증가를 견인하며, 후속 모델 '950DT'는 4분기 출시 계획. - 미·중 기술 갈등으로 인한 미국의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 최신 AI 칩의 중국 공급이 제한되면서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화웨이 칩 확보 경쟁에 나서는 흐름이 심화. 일부 AI 모델도 화웨이 칩 기반으로 최적화되는 움직임 포착. - 다만 해당 수치는 확보된 주문 기반 추정치로 로이터는 독립 검증 불가를 명시. 생산 능력과 기술 격차 등 변수가 남아 있어 시장 지배력 확대로 직결될지는 미지수이며, 향후 실제 성과와의 괴리 가능성에 대한 유보적 시각도 병존.
	<p>□ 구글, 제미나이 광고 검토...AI칩 직접 판매로 엔비디아 정면 승부 (2026.04.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글은 생성형 AI 서비스 '제미나이'의 장기적 광고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편, 자체 개발 AI 칩 'TPU'를 일부 고객사에 직접 판매하기 시작하며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AMD와의 경쟁 본격화. 모회사 알파벳의 2026년 1분기 매출은 1099억 달러(약 163조 원)로 전년 대비 22% 증가하며 시장 전망치를 상회. - 구글 클라우드 매출은 2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전년 대비 63% 급증하고 영업이익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p>은 세 배 이상 확대. 기업용 AI 수요의 본격 반영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TPU 직접 판매 관련 매출은 연말부터 반영되고 본격적인 실적 기여는 2027년 이후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다르 피차이 CEO는 고성능 컴퓨팅 수요 증가에 대응한 TPU 직접 공급을 AI 인프라 수요 확대에 맞춘 전략적 결정으로 설명. 구글은 올해 자본지출 계획을 상향 조정하며 데이터센터와 인프라 확충 투자를 지속.
기타	<p>□ 직장인 절반 "AI 도입 후 채용 줄었다... 업무량은 그대로" (2026.05.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6년 2월) 결과, 응답자의 47.1%가 직장 내 AI 기술 도입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라고 답변. AI 도입 이후 채용이 줄었다고 체감하는 응답은 52.4%에 달했으며, AI 도입 사업장 근로자 중 23.8%는 구조조정이 진행됐거나 계획 중이라고 응답. - 구조조정 우려는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월 소득 150만 원 미만 비정규직 집단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업무량 변화에 대해서는 '변화 없다'(54.1%)가 가장 많았으나 '늘었다'(26.7%)는 응답이 '줄었다'(19.1%)를 상회하여 AI 도입이 노동 강도 강화로 작동할 우려 제기. - 직장갑질119는 AI 도입이 채용 축소와 노동 강도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하며, 정책 설계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권·알권리·이의제기권 보장 및 공정한 분배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 제시.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